

글로벌 월경위생 캠페인의 전개와 월경인권 담론 연구

노지은*

초 록

지구화 시대 월경은 이제 글로벌 인권 규범과 개발 의제로서 '인권으로서 월경'을 논하는 시점에 와있다. 2000년대 들어서 새천년을 맞이한 글로벌 사회에서 월경 문제는 페미니즘 논의와 운동에서 오래된 재생산권리의 이슈나 글로벌 개발에서의 성재생산건강권의 목표에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지속가능한 환경 목표에서 물과 위생의 문제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월경위생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을 살펴보고,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과 물과 위생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개발 주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월경위생 관리 담론을 분석한다. 글로벌 월경금기, 월경 통계를 포함하여 특히 아시아의 낙후한 저개발 지역의 월경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글로벌 인권 규범이 월경위생 담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이에 월경 문제를 위생과 보건의 개발 의제로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서, 여성의 월경 경험이 월경인권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젠더와 성재생산건강권리의 여성주의 의제로 확장되어 한다는 점을 제언한다.

주제어 : 월경인권, 월경위생, 월경금기, 젠더, 지속가능한 개발, 아시아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수석연구원(jieunroh@ewha.ac.kr)

I. 서론

새천년을 맞이한 글로벌 사회에서 월경 문제는 오랜 기간 여성건강운동을 통해서 재생산건강과 재생산권리를 담지 하고자 한 여성주의 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하게 전혀 다른 세력, 다른 영역, 다른 각도에서 등장했다. 월경 문제가 글로벌 지형에서 개발과 인권 의제로 등장한 것은 유엔의 ‘물 공급 및 위생 협력위원회(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ective Council, 이하 WSSCC)’의 전 세계 물과 위생과 보건(Water, Sanitation and Hygiene, 이하 WASH) 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지점으로 추동되면서부터였다(WSSCC, 2000).¹⁾

2004년 11월 새천년개발목표(MDGs) ‘안전한 식수와 기초 위생(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의 중간 평가를 위해 모인 회의에서 마하라자와 패트카는 “개발 국가에서의 월경위생과 관리”에 관한 발표문을 통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누락된 위생의 문제가 바로 월경위생의 문제라고 제기한다. 여기에 어느 영역에서나 기존에 월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월경증후군과 같은 일부 월경 증상에만 둔 것을 비판하면서, 개발 국가에서의 월경위생과 관리 문제를 재점검할 것을 제의한다(Bharadwaj and Patkar, 2004).

지난 십년 사이 위생의 문제는 환경 건강 문제와 연결되면서 그 폭을 확대하고 시너지를 발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경위생이나 월경 관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재생산건강, 질병예방, 인권에 기초한 문서들에서도 독성증후군이 나 월경증후군에 주요 관심을 쏟았을 뿐 여성들의 실질적 혹은 전략적 필요의 측면을 다루는 지 못했다(...)* 물과 위생 정책의 성주류화를 다룬 문서들에서도 월경 관리는 빠져있다(...)*지금까지 월경위생 관리 정책이나 투자와 실행이 부재한 것은 매우 놀랍다*(Bharadwaj and Patkar, 2004. 이탤릭 필자 강조).

1)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는 WASH를 ‘상하수와 위생을 위한 세계 캠페인’으로 소개하면서 이러한 전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물과 위생 관련 분야가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 여세는 1990년대 후반에 절정에 이르렀다. 2000년 9월,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충분한 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2015년까지 반으로 감소시킬 것을 8개의 새천년 발전 목표 중의 하나로 채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 물 문제가 5개의 핵심 주제- 물, 에너지, 건강, 농업 및 생물의 다양성- 중의 하나로 채택되었다(...)*세 번의 물 포럼에서 ‘세계 물위원회’(World Water Commission)와 새로 발족된 ‘WASH’(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 상하수와 위생을 위한 세계 캠페인)가 상호협력 끝에 새로운 서약들을 작성하는데 성공했다.*” 2005.11.21. <http://unep.or.kr>

이어 유엔 WSSCC가 발간한 2006년 연구보고서는 그동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빈곤지역에서 기본적인 위생시설과 안전한 식수의 문제는 여성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은 점차 인식이 높아졌지만, WASH가 성평등 이슈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월경을 둘러싼 금기와 행위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Fisher, 2006). 2007년에는 월경위생 문제와 새천년개발목표와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청소년들이 월경위생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함으로써 새천년개발목표 2(보편적 초등교육), 목표 3(성평등 및 여성권한강화), 목표 7(지속가능한 환경)이 더더지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Ten, 2007). 유엔연구개발도 2008년 새천년개발목표 가운데 보편적 교육과 성평등 목표에서 학교 월경위생 교육이 간과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WASH는 월경을 둘러싼 위생과 건강, 특히 청소년 교육과 인권의 문제로까지 파고들었다(Tearfund, 2009).

2015년에는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의 평가에 이어,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Post-MDGs)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재설정에서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은 여섯 번째 목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물과 위생 분야가 개발 목표에서 강화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과 관리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특별히 집중 관심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그간의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의 확산과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새천년개발목표는 8개 목표와 2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다.²⁾ 물과 위생 이슈는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일곱 번째 목표의 세부목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반면,³⁾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물과 위생시설의 보편적 접근을 따로 명시하고, 세부목표 6.2에서 특별히 여성과 여아들의 취약성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⁴⁾

이로써 글로벌 개발 담론에서 월경 문제는 월경위생 관리(Menstrual Hygiene Management, 이하 MHM)를 중심으로 하는 ‘월경과 위생’이라는 개발의 전략 이슈로 설정되었다. 즉 WASH & MHM은 한 짝이다. 이러한 과

2) 외교부 개발협력. <http://www.devco.go.kr/contents.do?contentsNo=83&menuNo=310>

3) MDGs Goal 7.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arget 7.C: Halve by 2015.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without sustainabl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and basic sanitation. <http://www.un.org/millenniumgoals/envIRON.shtml>

4) SDGs Goal 6.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Target 6.2: By 2030, achieve access to adequate and equitable sanitation and hygiene for all and end open defec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girls and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6>

정을 통해 빈곤국 원조개발사업으로서 국제재단기금지원과 국제파트너들의 후원 하에 국제개발기구와 국제연구소, 로컬 NGO와 연계하는 WASH & MHM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⁵⁾ 국제개발기구와 공중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만나면서 월경위생 관리를 키워드로 한 연구 프로젝트도 급부상했다(Sumpter & Torondel, 2013).⁶⁾

그동안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아시아 지역의 여성에 관한 월경 연구는 십여 년 전부터 유엔을 중심으로 월경위생 관리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 지원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업 대상인 ‘여성’과 사업 수혜 ‘지역’이 겹치면서 활발해지고 있다. 저개발 국가 여성들의 월경하는 몸이 글로벌 개발 담론에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의 특정한 종교적 문화적 월경 관습과 믿음, 여성들의 월경 관리와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⁷⁾

더불어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 개발 지원 자금이 들어오면서 사업 수혜지역인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르완다, 수단이나 특히 서아시아의 인도, 방글라데시 국가를 사례로 한 월경하는 여성에 대한 지역 연구가 근자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⁸⁾ 오래전 서구 인류학자들에 의해 일부 밝혀졌던 월경에 대한 금기나 제약 즉 종교 문화적 관념과 사회적 관습뿐 아니라 현재 가난한 도시나 농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월경 인식과 월경 중의 행동,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연결한 민족지 연구나 통계 조사 연구가 생산되고 영어권 저널에 등장하고 있다.⁹⁾ 특히 인도의 경우는 WASH 프로젝트와 월경위생 관리 프로그램을 인도 각 지역과 국가적 차원으로 실행되고 관련 연구 모니터링 보고서가 축적되면서 학교 소녀들의 교육과 월경 관리와 위생을 연결한 의학, 보건학, 개발학에서의 연구가 팽창하고 있다(Hirve et

5) 대표적으로 WSSCC, WaterAid, WASH United, IRISE International, IRC Inter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Centre, Sanitation and Hygiene Applied Research for Equity(SHARE), Tearfund 등이 있다.

6) 2011년 WASH 분야를 아예 제목으로 한 저널인 *Journal o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Development*이 창간되었고, 여기서 MHM은 주요한 연구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7) Dunnavant & Roberts, 2013; Nagarajan, 2007; Lennox, 2013.

8) Bharadwaj & Patkar, 2004; Kirk & Sommer, 2006; Adhikan et. al., 2007; Ahmed & Yamin, 2008; Mahon & Fernandes, 2010; Sommer, 2010; Narayanan et. al., 2012; Sommer et. al., 2014; WaterAid, 2008, 2009, 2012; UNICEF, 2008, 2012; WHO & UNICEF, 2014.

9) Yagnik, 2013; Crofts & Fisher, 2012; Selvi & Ramachandran, 2012; Ranabhat et. al., 2015; Hoskins, 2002.

al., 2015).¹⁰⁾

이러한 월경위생 관리와 관계된 연구들에서 월경금기나 월경하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대한 사회적 제약, 월경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교육의 부재, 월경을 처리하는 위생시스템의 취약성, 특히 일회용 생리대 상품이 발전하지 않은 곳에서의 비위생적 생리대 사용의 현황을 짚는 것은 거의 모든 연구 배경의 단골 레퍼토리가 되고 있다(Lahiri-Dutt, 2015). 그리고 이들 여성들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어느 순간 갑자기 월경금기와 사회적 제약에서 구해내야 하는 대상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월경 문제가 글로벌 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배경에 주목하면서 월경 캠페인과 연구보고서를 통해 월경위생 관리와 관련한 개발 주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월경위생 담론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월경금기, 월경 통계를 포함하여 아시아의 낙후한 저개발 지역의 월경 현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월경위생이 글로벌 인권 규범으로 위치지어지는 방식에 주목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월경 문제가 저개발 지역의 발전 문제와 여성 인권 계몽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II. 월경위생과 월경인권 담론의 전개

1. 글로벌 월경금기와 월경 통계의 재현

오늘날 여성은 과거처럼 격리된
월경 오두막에 살 필요는 없게 되었지만
마음에 오두막을 짓고 수치심과 죄의식을 쌓고 있다.
(Weideger, 1976)

21세기 새천년 밀레니엄을 맞아 지난 수년 동안은 지금까지 가려져왔던 각 지역의 월경금기가 그 베일을 벗고 전 지구적으로 회자된 시대로 기록될지 모른다. 1970년대부터 서구 페미니스트 인류학자들에 의해 미지의 부족들 사이에서 ‘발견된’ 월경금기는 웨지저의 말대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다시

10) Narayan et. al., 2001; Bhatt & Bhatt, 2005; Puri & Kapoor, 2006; Fernandez, 2010; Patil et al., 2011; Reddy & Snehalatha, 2011; Kamaljit et. al., 2012; Hrive et. al., 2015; Zaidi et. al., 2015.

등장했다.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주요 보고서들을 통해 최빈곤 지역의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월경에 대한 지식, 월경을 처리하는 방법, 월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월경 현황에 관한 조사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8년 WaterAid와 IRC 연구소가 공동으로 제작한 연구보고서 <Beyond construction : Use by all A collection of case studies from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practitioners in South Asia>는 지역의 WASH 담당자들을 통해 남아시아의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월경 현황 통계를 폭넓게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 보고서다(WaterAid & IRC, 2008). 이어 WaterAid가 지속적으로 발간한 2010년 <Menstrual hygiene in South Asia : A neglected issue for WASH programmes>(Mahon and Fernandes, 2010), 2012년 <Menstrual Hygiene Matters>(House et. al., 2012), 2013년 <Women and Wash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Jansz and Wilbur, 2013)와 같은 보고서들을 통해 물과 위생 전문가들은 월경위생 문제를 여성 인권이자 성평등의 의제와 연결시키면서 월경위생과 교육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보고서들이 쏟아내는 월경 통계들은 소녀들의 학교 중퇴율, 결석률이 높은 지역에서 여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월경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보편적 교육의 성취를 방해하는 요소들로서 지적되어 온 여아에 대한 성차별, 아동결혼, 조기임신, 경제적 빈곤, 아동 노동, 교육 제도의 미비 등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월경은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나 국제 사회에서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서아시아 지역 소녀들 97.5%가 월경혈이 자궁에서 나온다는 걸 모른다고 대답했다(Sumpter & Torondel, 2013). 이란 소녀들은 월경이 질병이라고 믿는다(WSSCC, 2012).

인도 소녀들 23%는 월경기에 도달할 때쯤 학업을 그만둔다(WSSCC, 2013). 아프가니스탄 여학생들 29%는 월경 중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House et. al., 2012).

여학생들이 월경 중에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로 20%가 옷에 묻는 것이 두려워서라고 대답했다(UNICEF, 2012). 인도 12-18세 사이 23%의 소녀들은 월경을 시작하면서 아예 학교를 중도 포기했다(Nielsen, 2010).

이처럼 월경을 질병이라고 생각할 만큼 월경을 왜 하는지, 월경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월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월경하는 몸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부재도 문제이지만, 여기에 월경 통계가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빈곤 지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위생 생리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재료들을 생리대 대용으로 쓰고 있는 통계적 현황이다.

방글라데시 시골 여성들은 95%가 헌옷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40%가 하루에 한번 교체한다고 응답했다(Ahmed & Ysmin, 2008).

인도 시골 및 도시 슬럼가 지역 여성들 조사에서 89%가 헌옷감을 사용하고 있고, 일회용 생리대는 7%만이 사용한다고 응답했다(Mahon & Fernandes, 2010).

네팔 여학생들 92%가 아무 준비 없이 초경을 맞았다고 응답했다. 일회용 생리대 사용은 도시 50%, 시골 19%로 나타났고,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잘 몰라서 41%, 비싸서 39%, 파는 곳이 없어서 33%, 버릴 데가 없어서 39%로 나타났다(WaterAid in Nepal, 2009).

2011년 1월 인도 타임지에는 “70% 인도 여성이 일회용 생리대를 살 여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 다룬 서베이 조사 연구에 따르면 월경을 하는 여성들 가운데 “12%만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고, 88% 여성들은 비위생적인 천이나 헝가리, 곡물껍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들 가운데 생식기 감염률이 70%에 이른다.” 그리고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리대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¹¹⁾ 즉 경제적 가난이 이유다.

기사에서 이러한 상황은 “일회용 생리대를 100% 사용하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88% 인도네시아, 64% 중국”과 대조된다. 이 조사에 응답한 97% 산부인과 의사들은 생식기 감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회용 생리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기사는 산부인과 의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비위생적 생리대 사용이 생식기 감염율을 높이는 원인이며, 또한 인도 사회에 만연한 월경금기가 월경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고 있음을 지적한다. “월경 건강을 이야기 하는 것이 여전히 사회적 금기가 되고 있어요. 월경 중인 여성들은 사원이나 부엌에 들어가지 못하고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꾸어야 합니다.”¹²⁾

11) “70% can’t afford sanitary napkins, reveals study,” *Times of India*, Jan 23, 2011. 기사에서 다룬 연구는 Nielsen(2010)에서 재인용.

2012년 WaterAid가 발간한 공동연구보고서 〈Menstrual Hygiene Matters〉(House et. al. 2012)는 세계 다양한 지역의 월경금기를 포함하여 여성의 월경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월경위생 향상을 위한 제언을 담은 지금까지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리소스 자료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식수와 위생 관련 국제원조단체 WaterAid는 전 세계적으로 WASH & MHM 프로그램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단체다. 이 보고에 의하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월경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달마다 학교에 결석하고 싶지 않아요(아프가니스탄) ;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형견 조각이나 나뭇잎, 공책을 찢어서 했어요. 교복에 묻었다고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았죠(탄자니아) ; 딸에게 얘기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나이지리아) ; 생리할 때 화장실에서 씻으면 그 물이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 아빠와 오빠가 있는데 어떡하나요(인도) ; 엄마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하셨죠. 부끄러운 일을 안당하려면요. 사람들은 월경이 더럽다고 생각하거든요(우간다) ; 보통 하나로 8~10시간을 버티곤 해요. 생리대를 교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요(인도) ; 애들이 팬티 한 장, 두 개의 천 조각으로 버티야 한다면 월경 중에 어떻게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탄자니아) ; 월경 중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자야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힘들어요(네팔). (House et. al., 2012).

남아시아 지역의 월경위생 실태 조사 보고서인 〈Menstrual Hygiene in South Asia : a neglected issue for WASH programmes〉는 지금까지 WASH 프로그램에서 간과된 문제가 바로 월경위생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월경 자체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족, 위생용품과 위생시설의 부족, 월경금기와 관습에 따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낳은 결과로 분석된다. 월경금기와 관련해서 월경 중에 여성들에게 제한되거나 요구되는 행동들로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 된다 :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돼요”,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가족과 떨어져서 자야해요”, “밖에 돌아다닐 수 없어요”, “몸을 씻으면 안돼요”, “요리하면 안돼요”, “종교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남자들과 접촉하면 안돼요”. 즉 월경 중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종교적 활동뿐 아니라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반적 활동이 제약될 뿐 아니라 먹고 씻고 자는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네팔에서는 조사대상의 89%가 어떠한 형태든 월경 중 요구되는 행동을 한 가지 이상 따르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서부벵갈에서는 조

12) 같은 글.

사대상의 98%가 월경 중에는 몸을 씻지 않고, 70.6%가 종교의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hon & Fernandes, 2010).

2. 월경위생과 인권

왜 월경위생이 핵심 문제로 등장하였는가를 보려면 왜 월경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문제와 연결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가에 관한 논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월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월경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 때문으로 지적된다. 첫째, 월경 지식과 교육의 부족 둘째, 위생 시설과 위생 생리대의 부족 셋째, 월경금기의 문제가 그것이다. 즉 월경에 대한 교육과 위생 시설의 부족이 월경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특별한 제약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월경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와 연관되는가? 첫째, 소녀들의 교육권과 노동권의 문제와 연관된다. 여학생들이 월경 중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청소년 1/10은 월경 중에 학교 수업에 결석한다.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여성노동자들은 한 달에 평균 6일 정도를 일하지 못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등의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여성들의 건강권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비위생적 월경 관리로 인하여 질염에 걸리는 여성들이 많다. 신체적 감염뿐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도 높다 등의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다. 셋째, 지역 위생 시설 개발 및 환경의 문제와 연관된다. 생리대를 처리할 수 있는 물 위생 시설이 미비하다.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공간이 없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미비하여 물과 땅을 오염시켜 환경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위생적 월경관리는 소녀들과 여성들의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환경을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월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제시된다. 첫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깨끗한 위생시설을 학교, 일터 등 모든 공공장소와 집에 갖추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학교나 가정에서 월경위생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와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위생적인 생리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월경금기나 낙인을 없애고 월경을 정상적인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물과 위생 분야에서의 월경위생 관리 캠페인의 핵심이다.

WASH & MHM 주요 보고서들은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물과 위생 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는 빈곤국에서 여성들과 특히 여학생들이

직면한 월경 문제를 월경금기로 인한 여성의 배제와 위생 교육 및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건강의 위협 등을 ‘월경위생 관리’로 문제화하고, 전체 물과 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위한 의식향상과 지원의 문제가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의 건강과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활동임을 강조한다.

부시와 윌슨스미스는 “침묵의 악순환: 월경위생 금기가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에 갖는 함의”에서 우간다의 여학생들의 월경위생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경금기가 저소득 국가일수록 월경금기가 여성들과 소녀들의 건강, 교육, 노동, 재생산권리와 관련한 인권을 충족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전의 인권의 문제를 다룬 UN 문서들에서 월경의 문제에 대해 침묵해온 이유를 UN 인권 시스템의 남성중심적 특성에서 찾는다. 이러한 오랜 침묵 자체가 월경금기를 지속하도록 재생산하는 한 형태임을 비판하면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월경의 문제를 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Boosey and Wilson-Smith, 2013).

윙클러와 로프(Winkler and Roaf, 2015)는 “옷장에서 피 묻은 천을 꺼내어: 성평등의 우선 과제로서 월경위생”이란 논문에서 인권과 성평등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떻게 월경위생의 문제를 가시화하고 정책의 실행 과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가를 고찰한다. 이들은 월경위생 관리 시설의 부족은 교육, 노동, 건강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월경하는 여성들을 위한 적절한 월경위생 관리 시설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생활의 권리, 인간 존엄의 권리, 성평등의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의 권리를 포함한 여성들의 권리의 문제로서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Winkler and Roaf, 2015).

월경위생 관리 캠페인에 의하면 월경위생은 여성들과 소녀들의 안녕과 존엄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다. 월경은 여성의 통합적 생애의 일부이자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월경을 더럽고, 오염된 것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문화가 많고 이는 월경하는 여성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도 하고 먹는 것을 제약하기도 하면서 강압적으로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고 세탁을 하고 씻을 수 있는 위생 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월경혈이 묻을까, 냄새가 날까 걱정하는 여성들과 소녀들, 거기에 학교 화장실 위생 시설의 부족은 결국 여학생들의 교육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House et. al., 2012).

이러한 논의의 기저는 학교에서의 월경위생 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경에 대한 금기와 잘못된 믿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월경은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금기 때문에 이야기 되지 못하고 있

는 현실에서, 월경위생의 문제가 물 위생 분야뿐 아니라 재생산건강과 교육에서도 무시되어 온 까닭에 여성들과 소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리하여 물 위생 분야 개발 협력 의제에서 월경위생은 “월경을 어떻게 안전하고 존엄하게 관리하는 가에 관한 실천”으로 정의된다(Mahon and Cavill, 2015). 글로벌 개발 의제에서 월경위생 이슈는 성인 여성의 건강권, 특히 학교를 다녀야 하는 청소년들의 교육권과 연결되는 것으로, 월경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사회적 성차별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임파워먼트를 통해 공적 영역에의 참여를 증진하여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장된다.

이렇게 월경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월경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곤란한 환경과 처지에 놓인 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가시화하는 동시에 여성들이 제대로 월경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다. 월경위생을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강조하는 것은 국가 정책 결정이나 개발 계획에 있어서 일반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개발, 교육, 위생 정책을 기획하는 오류를 범하여왔음을 성찰하면서 국가가 나서서 월경금기와 같은 문화를 철폐하고, 여성의 권리로서 월경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과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으로 물과 위생 분야의 개발 의제에서 월경을 문제화하면서 월경인권을 설득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아프리카,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빈곤 지역 여성들의 비위생적인 생리대의 사용률이 높다, ② 이는 여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③ 월경 중에 종교적 문화적으로 제한하는 잘못된 믿음과 행동들이 월경 관리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④ 월경 교육을 통해 ‘비과학적인’ 월경금기를 타파해야 한다, ⑤ ‘위생적인’ 일회용 생리대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⑥ 어린 소녀들이 적절한 월경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월경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 시설과 위생용품을 지원해야 한다, ⑦ 이로써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의 교육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⑧ 이것은 국제 인권 규범과 여성과 여아의 건강권 및 재생산건강권에 부합하는 일이다.

Ⅲ. 글로벌 월경 캠페인 사례

1.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

WASH & MHM 캠페인은 WSSCC와 더불어 UNICEF, UN Women, WHO, Global Sanitation Fund 등과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국제원조단체들에서도 진행되고 있다.¹³⁾ 예를 들어 옥스팜의 WASH 프로그램은 전 세계 35개국에서 진행 중으로 물 공급-식수와 가정용 식수뿐만 아니라 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데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 위생 시설관리-분뇨 처리, 고형 폐기물 관리, 배수 시설, 위생촉진활동,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위생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키트 전달 등을 포함한다.¹⁴⁾ 세이브더칠드런은 〈School Me〉 “여아 학교 보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WASH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위생 관리 및 생리대 활용 교육, 보건위생위원회 운영, 위생용품 제공 등을 사업으로 하고 있다.¹⁵⁾

위와 같은 배경에서 WASH & MHM 프로젝트 주체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독일에 있는 국제개발단체인 WASH United의 주도로 2014년부터 5월 28일을 ‘월경위생의 날(Menstrual Hygiene Day)’로 정하고 글로벌 사회에 월경/위생에 대한 인식 향상과 월경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5월 28일은 평균 월경일수 5일과, 평균 월경주기 28일을 상징하는 날로 정하였다고 한다. 2020년까지 매년 5월 28일을 공식적인 UN의 날로 삼는 게 이들의 목표다.¹⁶⁾

13) 2014 Columbia University/UNICEF: WASH in schools empowers girls' education; 2014 WSSCC to participate in first National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Conference in Uganda; 2015 WSSCC/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SHARE: Impact of Inadequate Access to WASH facilities on women and girls in India and Bangladesh; 2015 UN Women and WSSCC partner for women and girls in West Africa; 2015 WSSCC/UN Women: Studies on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Behaviour and Practices in Senegal and Cameroon; 2015 10 reasons to partner with the Global Sanitation Fund. <http://wsscc.org>

14) 옥스팜 코리아. <http://oxfam.or.kr/content/wash>

15) 세이브더칠드런. <https://www.sc.or.kr/school.me/programProgress.do>

16) Menstrual Hygiene Day, WASH United. <http://menstrualhygieneday.org/>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은 2014년과 2015년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지의 국가와 도시마다 로컬 캠페인과 이벤트를 지원해왔다. 2014년 첫 해에는 전 세계 145개 파트너들이 월경위생의 날에 거리행진, 전시, 영화상영, 워크숍,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참여했다.¹⁷⁾ 행사 주최는 WASH United, UNICEF, WaterAid 등 국제개발협력단체와 이들과 프로젝트 협력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개발전문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형태를 보인다. 여기에 대안 생리대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은 먼 생리대나 일회용 생리대를 후원하는 것으로 참여한다.

2015년 캠페인에는 290개가 넘는 국제시민단체와 지역단체, 연구기관들 및 대안 생리대 판매 기업들이 파트너로 참여했다.¹⁸⁾ 이들 파트너들은 33여 개국에서 127여건의 월경위생의 날 이벤트를 조직했다.¹⁹⁾ 특히 국제개발협력에서 물/식수/위생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WaterAid 로컬 지부가 상주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지역에서 MHM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월경위생을 핵심으로 하는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이 주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 각 지역에서 펼쳐진 캠페인 사례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인도가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예멘 등에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17) Danielle Keiser, "Menstrual Hygiene Day: A Milestone for Women and Girls Worldwide," Impatient Optimists,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7 May 2014. <http://www.impatientoptimists.org/Posts/2014/05/Menstrual-Hygiene-Day-A-Milestone-for-Women-and-Girls-Worldwide#.VuT8FvI960I>

18) "Partners of Menstrual Hygiene Day." WASH United. <http://menstrualhygieneday.org/partner-all/>

19) 아프리카 지역이 13개국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핀란드,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세아니아의 호주, 중동의 예멘,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으로 남아시아 국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http://menstrualhygieneday.org/wp-content/uploads/2015/08/MH-Day2015_FULLREPORT.pdf

20) 2010년 인도 정부는 전국 농촌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월경위생 계획(Menstrual Hygiene Scheme)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소녀들에게 위생 생리대 구입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지방 정부들도 이러한 계획을 내놓았지만, 정부재원이 없어 실질적으로 실행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Rose George, "Better Protected," 11 March, 2014. "Better Protected" 11 March. <http://mosaicscience.com/extra/better-protected>

〈표 1〉 2015 월경위생의 날 이벤트_아시아 지역

국가 및 도시	주최기관	행사내용
인도 가자아바드	Saathiya Foundation	성인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월경위생 정보를 제공. 대중 인식개선 홍보.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낙인이 인권의 문제임을 알려나감.
인도 코치	Bella	월경 주기, 여성의 몸과 변화, 생리대의 종류와 처리법, 월경 중 위생 관리 방법, 위생 건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인도 러크나우	National Health Mission, WaterAid & Vatsalya	75개 마을에서 건강, 교육, 아동 관련 개발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125명 참가. 학교에 위생 생리대 보급 강조. MHM 현장 교육 최고 사례는 MHM 교육 교재 'Vatsalya(나비의 비행)' 선정.
인도 러크나우	SRIJAN FOUNDATION	슬럼가 지역 20여명의 소녀들을 선정. 매달 1일 위생 생리대를 지급해주는 'HIMMAT(용기)' 프로젝트 시작.
인도 뱅갈로	MITU, Sukhibhava, Pasand, UGER & Urmila Chanam	10-18세 남녀 학생들이 참여하는 "Tell your side of the story" 진행. 월경이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야기하기. 그룹토론. 월경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화 바꾸기.
인도 타밀나두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Consortium(MHMC)	대학생 세미나 진행. 의사, 여성학자를 초청하여 월경에 대한 강의. 남성들 대상 교육 다큐멘터리 〈Menstruation〉 상영. 보편적 위생 교육에 MHM 교육을 어떻게 주류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전략토론. 1천명 참석.
인도 라이푸르	Carmdaksh, WaterAid	지역 MHM 관계자 MHD 준비 회의.
인도 라이푸르	Sankalp Sanskritik Samiti	슬럼 지역 커뮤니티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이동 클리닉 운영. MHM 교육과 퀴즈 대회 개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	Water Aid in Madhya Pradesh, National Health Mission, UNFPA & UNICEF	지역 MHM 협력기관 전문가 워크숍. 각자 활동에서 당면한 어려움과 해결책 토론.
인도 콜카타	Shomota Women Care Private Limited	월경 인식과 환경 문제에 남성들의 참여를 유도 하는 행사 개최. 월경의 심리적 측면에 관한 발표. 비디오, 노래, 공연. 천 생리대 관리 홍보.
인도 뉴델리	WASH United, UNICEF, WaterAid, Save the children, Plan India, Milan & Water for People	'Swacch Bharat Mission(클린 인도)' 목표를 위한 MHM 액션 개발 전국 워크숍. 인도수도위생부(MDWS) 협력 전국 공무원들에게 MHM 가이드 라인 배포.
인도 케이디	Socio-Economic Development Trust	지역 7개 마을 소녀들을 위한 1주일 MHM 교육 프로그램 진행. 마을을 방문하여 월경위생교육 공연 및 전시 행사.
인도 뉴델리	Health & You	월경금기와 지속가능한 월경위생 관리에 관한 온라인 토론 이벤트 개최.
인도 판치쿨라	Ankit Dhariwal Memorial Trust, Kaithal & HARYANA	지역 레드 블리스 국제학교 포스터 경연대회 "Growing Up is Wonderful"

국가 및 도시	주최기관	행사내용
인도 오디샤	Aaina. UNICEF & WaterAid	"Let's End the Hesitation around Menstruation" 건강 분야, 학교 및 미디어 교육 분과, 여성 아동 개발 분야 관리자 MHM 교육 워크숍 개최. 대중 매체를 통한 월경위생 이슈 홍보 전략. 대중 캠페인 사례 'Gram vaani(마을의 목소리)' 공유.
인도 아쌈	Eco Hub Small Industries & Mythri Speaks	45개 지역 학교 교사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및 MHM 교육 성공 사례 공유. 힌두 고등학교 여 학생들 대상으로 한 MHM 워크숍 실시. <Mythri> 영화 상영. 천 생리대 만들기. 월경금기의 문제 토론. 올바른 월경위생 관리 토론.
방글라데시 다카/치타공/ 콜나	Youth's Voice Foundation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월경위생 관리 훈련 프로그램 진행. 월경위생 기본 교육 활동가 수료증 제공. USAID, WaterAid에서 파견 온 전문가 특강. 영상 상영. 재활용 가능한 생리대 만들기. 1천여 명 참석.
방글라데시 다카	SNV 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지역 의류 공장 10군데를 지정. 1주일간 의식향상 캠페인 진행. 의류공장 여성노동자 대상으로 월경 관리 교육. ACI Limited 후원.
방글라데시 다카	Water & Sanitation for the Urban Poor	월경위생의 날 기념 거리 행진. 마을 남성 지도자 참여. 17개 슬럼가 지역 활동가들에게 월경위생교육 훈련 제공. 생리대 무료 지급.
방글라데시 다카	Transformation of Development Across Society	청소년, 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월경 교육 진행. 월경 이미지와 메시지 그림 그리기. 생리대 무료 배포.
파키스탄 카푸르	Khairpur Regional Development Organization	10개 마을 방문 월경위생 교육. 사춘기 변화, 몸의 변화, 생리대 사용법 및 처리법, 천 생리대 재사용 법 등 교육.
파키스탄 나시라바드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y	월경위생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생리 대 사용법의 중요성 등 월경위생 관리 교육.
파키스탄 카푸르	Integrated Regional Support Program	5월 한 달 간 월경위생의 달로 선포. 12개 온라인 캠페인 진행. 카푸르 지역 정부 정책에 MHM 향 상을 위한 정책 촉구.
파키스탄 무자파르	AGAHE, UKaid & WaterAid	지역 학교에서 월경위생 교육. 공연·영화 상영, 퀴즈· 그림 대회 개최. MHM 지도자 수상식. "Let us End the Hesitation around Menstruation"
네팔 카트만두	GUTHI, WaterAid Nepal	MHM 키트 배포. 천 생리대 만들기 워크숍.
부탄 팀부	SNV & Department of Youth and Sports	부탄 교육스포츠부와 협력으로 학교 월경위생 교육 실시. MHM 연구 결과 공유.
예멘 싸나	Mercy Corps Yemen	Mercy Corps 예멘 지부 주최. 마을과 학교에서 기본 MHM 교육 진행. 마을 및 개인위생 향상 교육. 총 7,030명 참가.

출처 : MHD 홈페이지 및 MHD 2015 Full Report에서 재구성.²¹⁾

21) <http://menstrualhygieneday.org/event/world-menstrual-hygiene-day-2015>
[http://menstrualhygieneday.org/wp-content/uploads/2015/08/MHDay2015_](http://menstrualhygieneday.org/wp-content/uploads/2015/08/MHDay2015_FULLREPORT.pdf)
 FULLREPORT.pdf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이 강조하는 것은 한마디로 월경위생 관리와 교육의 중요성이다.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은 특정 지역에서의 월경하는 여성들이 처한 문제를 글로벌 대중들에게 알리고 MHM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한 국제적 지원과 연대를 호소한다. 그리하여 월경위생의 날 캠페인은 글로벌 대중들에게 특정 로컬 지역에서 월경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알려나가는 동시에, ‘문제가 되는 로컬’의 대중들에게 월경위생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알려나가는 의식 향상 캠페인이 주를 이룬다. 그리고 캠페인이라는 특성상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각인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 도구가 중요하다.

이러한 캠페인 내용을 전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전 세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캠페인 행사전시용 도구 키트(toolkit)를 만들어서 웹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다.²²⁾ 이 도구 키트는 어느 행사에서나 붙이고 전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관련 정보를 팝업 이미지 형태로 만들어 보여준다. 여기에는 글로벌 월경금기 지도, 월경을 가리키는 용어들, MHM이 가져온 변화를 다룬 사진 이야기, 월경의 다양한 모습을 새로운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주는 월경 아트 자료, 월경위생 관련 핵심 정보를 이미지로 만든 인포그래픽, 참가자들이 만드는 슬로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필요로 한 자료가 바로 지역의 월경위생관리 프로젝트 담당자, 월경위생 교육을 위한 교육 지도서의 생산이다. 예를 들어, 2012년 〈Menstrual Hygiene matters〉 보고서의 목적은 이렇게 서술된다: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의 정책과 전략,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각 지역의 다른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지식을 공유한다; 월경위생 관리 분야의 활동가들에게 월경위생을 문제화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한다; 월경위생 옹호 활동을 증진하고 관련 분야의 옹호 활동과 실행을 독려한다”(House et. al., 2012). 이러한 보고서가 공유하고자 한 정보와 주장들은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주요 기본 정보로서 월경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고, 개발의 목표로서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 활동의 월경인권의 관점을 제공하는 종합보고서로서 널리 활용된다.

2013년 영국 셰필드 대학 소재 아이리스국제연구소가 발간한 〈Menstrual Health Education Resource〉(Wilson-Smith et. al., 2013)는 월경위생 교육을 위한 도구 키트로서 아프리카 동부 지역 환경에 맞춰 개발한 자료다. 학교 학생들과 교사, 여성 자조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3000여명에 달하는

22) <http://menstrualhygieneday.org/2015-pop-up-exhibit-toolkit/>

여성들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 알아야 할 내용을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월경위생 교육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교육 자료에서 다루는 주제는 사춘기, 몸의 구조, 월경주기, 불규칙한 월경, 월경통, 월경위생, 월경 중 감정의 변화, 월경과 성관계 등 8가지 주제를 뽑았다. 이 밖에 천 생리대 사용법, 세탁법, 건조법을 별도로 다루어 교육 대상들에게 나눠주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5년 WaterAid가 영국의 SHARE 연구소와 협력으로 만든 〈Menstrual Hygiene Matters: Training guide for practitioners〉(Mahon and Cavill, 2015)는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 교육 훈련 활동가들을 위한 최신 가이드북이다. 글로벌 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지역에서 월경위생 관리 의식향상을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세션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훈련 교재를 개발한 것이다. 훈련 교재는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세션은 교육 목표, 핵심 사항, 수업 시간, 교실 배치, 교재, 방법론, 프로그램 시간표, 주요 메시지 정리, 참고문헌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각 세션에는 수업 진행 요령, 질의응답 대처법, 주요 전달 사항 등을 별도로 정리한 교육 지침서가 딸려 있다. 또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 파워포인트, 영상도 제공된다. 교육 자료는 WaterAid 지부가 있는 국가 프로그램, 로컬 NGO 단체 활동가,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위생 개발 주체들은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의 지원뿐 아니라 글로벌 규범 지식으로서 월경 교육 텍스트의 생산과 확산에도 개입하고 있다 (Kabir et. al., 2012; Lahiri-Dutt, 2015). 이러한 MHM 교육 자료에서 월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강조점은 결국 월경에 대한 ‘과학적/합리적 지식’의 보급과 월경위생이다. 또한 여기서 월경위생 관리는 비위생적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 정신적 스트레스, 기타 건강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무엇보다 ‘위생적인 생리대 관리’가 강조된다.

이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과 위생 담론에서 월경의 문제는 위생 시설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월경위생 교육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월경하는 몸을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기존 통념을 반복하지 않으면서, 월경위생 교육에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커크와 소머는 위생 생리대의 사용을 강조하는 것이 로컬 여성들이 천 생리대를 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문제인 것인가, 그래서 외부의 자원을 끌어다 생리대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일 뿐인가, 그리고 월경 중 겪을 수 있는 기분의 변화나 월경통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월경을 병리화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과 어긋나는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질문한다(Kirk and Sommer, 2006). 소위 문제적 월경을 과학적 지식의 보급과 현대적 위생 관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월경을 병리화하는 관점을 지속시킬 우려도 있다. ‘월경=위생/비위생=건강/질병’으로 이어지는 논리는 월경을 여성의 신체적 경험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분리된 생리적 과정으로서 정상화시키면서, 위생 관리 차원으로 개인화하고, 다른 한편 건강 전문가, 위생 전문가에 의해 다뤄져야 하는 문제로서 월경을 병리화시키는 의료적 시각을 내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2. 로컬 생리대 개발과 지구적 분업

2013년 WSSCC가 주최한 WASH & MHM 관계자 전체회의 주제를 보면 “여성다움을 축복하기: 더 나은 월경위생관리를 통한 더 나은 건강, 존엄, 비즈니스로 가는 길”이었다(George, 2013). 흥미로운 것은 ‘여성다움을 축복하는’ 이 회의에 보건 및 교육 전문가, 물 위생 관리 프로젝트 활동가뿐 아니라 위생 시설 및 폐기물 관리 엔지니어 기술자, 농업경제 분야 기업, 사업 마케팅 관계자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바로 저소득 저개발국가에서의 월경금기 타파와 보건 위생의 해결을 위해서 월경위생 시설 설비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혁신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방법과 펀딩을 모색하고, 2015년 포스트 새천년개발목표 논의에 월경위생의 문제를 국제 정책의 수준에 포함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 관계자들은 한편으로는 글로벌 월경위생 캠페인과 교육을 로컬에서 주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로컬 생리대 개발 및 생산, 판매 회로 개척 및 글로벌 마케팅의 전략을 기획하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경위생 의식향상 캠페인뿐 아니라, 개발기구와 민간단체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MHM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교육과 마을 위생 관리, 그리고 생리대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생 생리대에 대한 강조는 교육 및 관리뿐 아니라 생리대의 공급에도 주목하기에 이른다. 생리대 공급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보는 지역은 다국적 기업, 사회적 기업, 지역 기업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생리대 개발 시장에 ‘파트너’로서 몰려들고 있다(Lahiri-Dutt, 2015). 물, 화장실, 위생 시설과 함께 생리대의 보급이 바로 월경위생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2011년 케냐 2백 70만 명의 여학생들이 적절한 생리대가 없어서 1년에 약 6주를 결석한다는 보고가 나온 이래, 케냐 정부는 학교에 생리대 보급과 생리

대 면세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정부 예산 삭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학생들의 수는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²³⁾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월경위생 관리와 여학생들의 학교 교육이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NGO 단체들과 로컬 사회적 기업의 협업을 통한 대안 생리대 개발과 교육, 배포에 이르는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케냐의 자나아프리카(ZanaAFRICA)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회용 생리대 로컬 브랜드 니아(NiA)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²⁴⁾ 자나아프리카는 일회용 생리대를 홈페이지 주문을 통해 단체에 판매하고 별도로 학교 보급용 스쿨키트를 제공하고 있다. 스쿨키트에는 32개의 일회용 생리대와 먼 팬티가 세트로 들어가 있다. 스쿨키트의 보급망은 자나아프리카재단을 통해 로컬의 21개 파트너 단체를 통한다. 재단은 일회용생리대의 학교 보급을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파트너 단체 관계자들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청소년들에게 재생산건강교육, 월경위생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이드와 정보를 제공한다.²⁵⁾

르완다의 쉬(Sustainable Health Enterprises, SHE)는 르완다 실정에 맞는 생리대 개발과 제조를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공장에서 지역 여성들이 생산 노동자로 참여한다. 바나나 섬유를 재활용해서 저렴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로컬 브랜드 고판드(GoPad) 생리대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바나나 섬유로 만든 생리대는 땅 속에서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 생리대로 현지 사정에 맞게 개발된 해법이다.²⁶⁾ 고판드는 지역 보건 활동가들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된다. 유엔인구기금 등 후원기관과의 협력으로 생리대 키트를 지원하면서 학교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학교 월경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기존 시장에서 생산되는 생리대 상품의 면세를 주장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생리대를 판매하고 판매 수익은 활동가들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활동가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되도록 한다.

23) 2011년 케냐 교육부에 따르면 9-18세 사이 2백 70만 명의 소녀들이 위생 생리대 보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케냐 정부는 수입 생리대에 부가된 세금을 면제함으로써 생리대 가격을 18% 낮추었다. 2012년에는 공립학교에 'Sanitary Towel Program (STP)' 생리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해 4백만 달러를 투입해 초등학교 443,858명의 여학생들에게 일회용 생리대를 무료로 나눠주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568,925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았으나 이듬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결국 1/3 정도의 여학생만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Mutengi. 2015).

24) ZanaAFRICA, <http://www.zanaafrica.com/our-brand>

25) ZanaAFRICA Foundation, <http://www.zanaafrica.org/delivering-pads/>

26) Muthengi(2015) 참조.

우간다의 마카패드(MakaPads)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종이 파피루스 재질로 만든다. 마카패드는 99%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일회용 생리대다. 2003년부터 제작된 마카패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여러 비영리단체들을 통해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Croft and Fisher, 2012). 학교 여학생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배포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가격의 50% 수준에서 지역 여성들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²⁷⁾ 또 다른 우간다의 아프리패드(AFRIpads)는 지역 경제의 발전과 월경위생 교육을 결합한 사회적 기업으로, 일회용 생리대가 아닌 재사용이 가능한 폴리코튼 재질의 면 생리대를 2009년부터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다. 생리대 봉제 생산은 마을 여성들의 직업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작비는 글로벌 파트너들 즉 캐나다, 호주, 미국 등 대안 생리대 판매사의 소비자 1+1 캠페인 기부금으로 후원을 받는다.²⁸⁾ 아프리패드는 1년 사용 분으로 키트 형태로 판매한다. 아프리패드 키트는 시민단체를 통해 학교 아이들의 월경위생 교육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간다의 마카패드와 아프리패드는 기존 일회용 상품 생리대 가격의 문제와 질 낮은 천 생리대의 대안으로 저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그리고 지속가능한 대안 생리대로 개발된 것이다. 우간다에서 시장 상품 생리대 10개 1팩 값이 1.35달러인데 이는 노동자 하루벌이 노임보다 비싼 가격이다. 일반 여성들은 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낡은 천을 접어서 생리대 대용으로 써왔다.²⁹⁾ 하지만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 생리대는 그 질이 떨어지고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다. 생리대 가격과 재질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바로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섬유로 만든 일회용 생리대인 마카패드와 면으로 된 천을 일회용 생리대 형태로 재봉해서 사용의 편리함을 높이고 세탁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아프리패드의 상품화였던 것이다(Crofts and Fisher, 2012).³⁰⁾

27) <http://t4tafrica.co/makapads>

28) <http://www.afripads.com/>

29) 낡은 옷감뿐 아니라, 신문지, 나뭇잎을 사용하거나 동네 가게에서 화장지, 솜을 사다가 쓰기도 한다(Crofts and Fisher, 2012).

30) 우간다 여학생들의 생리대 사용 실태 조사에서 여학생들은 Always나 Satyfee 같은 일회용생리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비싸지만 사용이 편리하고 품질 면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반면 마카패드는 일회용이라 편리하지만 직사각형의 모양이 몸에 불편하고 흡수 기능도 떨어져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패드는 대부분 사용 만족도가 높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세탁하는 것을 꺼리거나 키트로 사는 가격이 비싸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로써 대안 생리대 역시 가격과 품질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카패드나 아프리패드는 가난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인식도 많았다(Crofts and Fisher, 2012).

글로벌/로컬 사회적 기업과 비정부기구에 의한 생리대 개발 사례는 저가의 생리대 보급을 통하여 지역 여성들의 월경위생 문제 해결뿐 아니라 가난한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공동체 사회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로컬 생리대” 제조와 유통 그리고 기부는 여성들의 경제적 임파워먼트 및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의 모델로서 글로벌-로컬 주체들을 연결하고 있다.

3. 생리대 기부 캠페인의 회로

글로벌 월경 캠페인과 로컬과 로컬을 연결하는 생리대 기부 캠페인은 사람과 집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로서 생리대뿐 아니라 월경위생 문제와 재생산권리와 건강, 여성 인권에 대한 지식과 관점 역시 초국적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특히 대안 생리대의 생산과 기부를 통한 유통은 글로벌 월경 캠페인을 매개로 이뤄진다. 북반부 선진국들의 사회적 기업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남반부 지역에 생리대를 생산하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외원조기관과 연결된 지역 시민단체는 기부 받은 생리대를 배포하면서 생리대 사용법 설명과 월경위생 교육을 대행한다.

대표적으로 아프리패드, 마카패드, 고패드와 같이 아프리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생산하는 패드는 북반구의 대안 생리대기업과 후원을 맺고 제작비 지원을 받기도 하고 대안 생리대기업 물품을 지원 받기도 한다. 한편 생리대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부자는 주로 북반구의 개발선진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 대안 생리대 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루나패드(Lunapad), 루비컵(Ruby Cup), 나트라케어(Natracare), 디바컵(Divacup) 등 유기농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 면생리대, 월경컵을 주로 판매하는 곳이다. 이들 대안 생리대 기업은 미국과 유럽에서 일회용 생리대 상품만이 유일한 기존 시장에 일회용 생리대 상품의 일회성, 안전성을 문제화하면서 대안 생리대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전 세계 주문이 가능한 인터넷 온라인 상품마켓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이 제품들도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사실 이들 대안 생리대 기업은 이미 전 세계 대안 생리대 상품 시장을 독점하며 글로벌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 가깝다.

생리대 기부 캠페인의 형태는 흔히 1+1 형태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One4Her” 캠페인은 미국과 캐나다의 대표적인 면 생리대 제품인 루나패드를 소비자가 구입을 하면 한 개 구입가를 우간다 아프리패드 제작비로 후원하게 되는 ‘패드 대 패드(pad for pad)’방식이다.³¹⁾ “Buy One- Give One” 캠페인은 영국의 월경컵 제품인 루비컵을 한 개 구입하게 되면 케냐에서 루비컵(Rubu Cup in Kenya) 생산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³²⁾

이들 대안 생리대 기업 제품은 <PAD Heaven>, <Donate A Pad>³³⁾와 같은 NGO 단체를 통해 생리대를 필요로 하는 소녀들에게 전달하는 기부용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다.³⁴⁾ 예를 들어 “Pads4Girls” 캠페인은 비영리국제단체 <Days for Girls International>이 생리대 후원을 받아 생리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캠페인이다.³⁵⁾

이로써 이들 NGO 단체들은 로컬 생리대를 매개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기부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판매자, 판매자와 소비자, 소비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로컬 생리대 생산과 소비, 학교 월경 교육과 지원을 연결하는 로컬 생리대 기부회로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로컬 정부와 커뮤니티, 학교와 로컬 NGO, 국제 기부 단체와 해외 생리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그림 1>).³⁶⁾

사회적 공헌을 통한 기업 마케팅은 이들 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일례로 <그림 2>³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월경위생의 날 행사에 파트너로 참여한 대안 생리대 기업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로컬 대안 생리대 기업 SHE, ZANA, AFRIPad 이외에 대부분이 북반부 지역의 대안 생리대 기업들이다.

31) <http://lunapads.com/one4her-shop>

32) <http://www.ruby-cup.com/social-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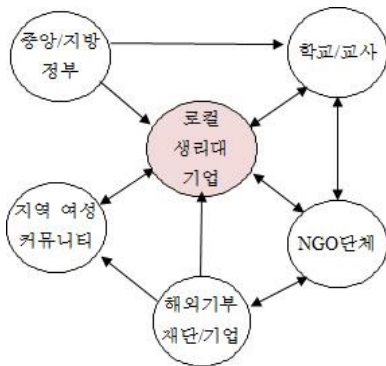
33) 케냐의 무텅기는 2012년 <Donate A Pad Initiative>를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다. 동료의 결혼식 때문에 케냐의 북쪽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에 방문하였을 때, 길가에서 혼자 앉아 있는 소녀를 발견하였는데 소녀가 생리 중이어서 격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문화적 금기 때문에 월경이 끝날 때까지 외진 곳에서 따로 지내면서 어머니가 오가며 가져다주는 음식에 의지해 월경 기간을 보내는 마을의 소녀들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나눠주고 위생 건강 관련 교육을 시작했다(Muthengi, 2015).

34) <<http://www.padheaven.org/>> <<http://www.donatepads.org/>>

35) <http://www.daysforgirls.org/>

36) 케냐 <Donate A Pad> 활동 사례에서 로컬 생리대 기부회로를 재구성(Mutengi, 2015).

37) <http://menstrualhygieneday.org/partner-all/>



〈그림 1〉 로컬 생리대 기부 회로



〈그림 2〉 월경위생의 날 파트너 기업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로컬에서 개발한 대안 생리대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를 이용한 일회용 패드가 주류를 이루는 반면,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의 대안 생리대는 주로 면생리대와 월경컵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북반부 여성들이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가 일회용 패드나 탐폰 시장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몸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과 환경 친화적인 면생리대와 월경컵 혹은 유기농 재질 정도가 대안으로 연결되는 반면,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상품이 부족해서 일회용 생리대 접근성이 떨어지는 남반구 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비위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천 생리대를 대체하는 대안은 바로 일회용 생리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리대 기부캠페인을 통해 월경 문제가 다른 국가의 사례로까지 시선을 확장하는 것은 2000년대 들어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빈곤국 여성의 월경의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로컬의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의 차원으로 말하자면, 북반부와 남반구의 개발 협력을 잇는 다리가 바로 ‘대안 생리대’인 셈이다.

VI. 결론

페미니즘 논의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재생산 경험 이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사건임과 동시에 사회적 권력 관계와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출발한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권리 개념은 197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물결로부터 일궈 온 풀뿌리 여성건강운동의 역사적 산물이자 진화물로 보는 데 큰 이의가 없다(조영미,

2001 ; 하정옥, 2013 ; 이건정, 2013). 이후 1990년대 중반 유엔 카이로인구 회의, 베이징여성회의의 산물로 명시한 성재생산건강권은 재생산권리, 성적권리, 재생산건강, 성건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성 인권, 임파워먼트, 성평등의 맥락에서 글로벌 여성인권 규범으로서 자리잡아왔다(장필화 외, 2017).

월경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들은 여성들의 월경 경험이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는 젠더화된 사회적 경험이고 문화적 규범과 연결되어 있는 젠더 정치의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월경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월경 혐오와 수치심이 사회적 젠더로서 여성의 정체성과 행위를 구성하는 사회 문화적 믿음과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노지은, 2018).

그러나 글로벌 개발 담론에서 월경 문제는 페미니즘 논의와 운동에서 오래된 재생산권리의 이슈나 글로벌 개발에서의 성재생산건강권의 목표에서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물과 위생과 보건 분야에서 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전략 지점으로 추동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글로벌 월경위생 관리 담론과 빈곤 지역 개발 프로젝트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저개발 지역과 마을에서 ‘월경 현실’을 가시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글로벌 월경금기는 인권의 보장을 보편적 국제 규범으로 장착한 국제 개발 담론에서 표출되기 시작했다.

보건, 위생, 교육, 개발 전문가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초국가적 월경위생 계몽 담론은 글로벌 개발과 월경 프로젝트의 핵심 추동력이다. 특정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의 월경은 ‘특수한 로컬의 전통 문화’로 위치 짓게 되며, 글로벌 자본과 서구의 근대적 과학적 지식 개입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 아래 ‘보편적 인권과 성평등,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름으로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월경 현실 안에는 특정한 종교적 문화적으로 이어져 온 전통적 월경 관습의 장애, 월경하는 여성을 차별하는 미신에 가까운 월경금기, 근대 과학적 지식과 교육의 빈곤, 비위생적 생리대의 사용 실태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을 구해내야 하는 해법은 월경위생 관리로 제시된다. 즉 월경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위생 시스템과 위생 관리, 특히 생리대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월경위생 문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국가, 기업, 시민사회 정책 세력과 생리대 생산과 소비 시장 그리고 문화, 미디어, 기술의 복잡한 글로벌 정치경제학 안에 있다. 아시아를 대상으로 하거나 아시아에서 전개된 글로벌/로컬 월경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와 글로벌 인권 규범을 바탕으로 초국적 네트워크 회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회로 안에는 유엔 기구들과 개

발 전문가, 협력 국가, 지방 정부, 학교, 지역 커뮤니티, 로컬 시민단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는 학교 교육과 마을 위생 관리, 생리대 지원과 기부 그리고 로컬 생리대 개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형에서 월경 문제는 여성 인권·개발·임파워먼트·소비·건강·환경·연대의 새로운 수사학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가 글로벌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개발 기구와 지역 정부, 연구기관, 학교,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에는 “월경 건강은 인권이다”라는 글로벌 규범이 자리하고 있다. 월경위생 관리 프로젝트는 저개발국 여성들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활동으로서 설득해가고 있다. 월경금기를 비롯하여 월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부정적 문화와 관행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글로벌 사회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지구화 시대 월경은 이제 글로벌 인권 규범과 개발 의제로서 ‘인권으로서 월경’을 논하는 시점에 와있다. 여기서 월경은 여성 인권으로서 성재생산건강권의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월경의 권리는 넓게는 어떠한 젠더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재생산 능력과 성적 능력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되어야 할 권리, 여성이 성과 재생산 사안에서 중심적인 의사결정자가 될 권리, 안전하고 효율적인 성재생산 서비스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성재생산 권리와 연결되어 있다.

월경을 성재생산건강권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월경을 신체적·사회적·정치적·문화적·경제적 차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몸-젠더-섹슈얼리티의 재생산 경험의 계기로 정치화하는 것이다. 이에 월경 문제를 단지 낙후한 저개발 지역의 위생과 보건의 개발 의제로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서, 여성의 월경 경험이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구성되는 젠더 위계질서의 산물이며 월경 인권으로서 여성의 성재생산건강권리의 문제와 총체적으로 연결되어 한다는 점에서, 초국적 여성주의 재생산건강권 진영의 개입과 대안 담론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때다.

참고문헌

- 노지은(2018). “아시아 여성들의 월경 관리 사례 연구: 생리대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4(2) : 143-178.
- 장필화·이명선·노지은·김성애(2017).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제언”, *여성학논집*, 34(1) : 61-101.
- 조영미(2001). “재생산”, *여/성이론*, 통권 4 : 315-322.
- 하정옥(2013).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 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사회과학*, 34 : 183-210.
- Adhikan, P., Kadel. B., Dhugel, S. I. and Mandal, A.(2007). “Knowledge and practice regarding menstrual hygiene in rural adolescent girls in Nepal”, *Kathmandu University Medical Journal*, 5(3) : 382-386.
- Ahmed, R. and Yesmin K.(2008). “Menstrual hygiene : breaking the silence”, Wicken. J., Verhage. J., Sijbesma, C., Da Silva, C. and Ryan, P. eds. *Beyond Construction Use By All*, IRC Inter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Centre and WaterAid.
- Bharadwaj, S. and Patkar, A.(2004). “Menstrual Hygiene and Management in Developing Countries : Taking Stock”, Junction Social, Social Development Consultants.
- Bhatt, R. and Bhatt, M.(2005). “Perceptions of Indian women regarding menstru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ynecology & Obstetrics*, 88(2) : 164-167.
- Boosey, R. and Wilson-Smith, E.(2013). *A Vicious Cycle of Silence :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menstruation taboo for the fulfillment of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and, to what extent is the menstruation taboo address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human rights bodies?* Iris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Sheffield.
- Crofts, T. and Fisher, J.(2012). “Menstrual hygiene in Ugandan schools : an investigation of low-cost sanitary pads”, *Journal o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Development*, 2(1) : 50-58.

- Dunnavant, N. C. and Roberts, T. A.(2013). “Restriction and renewal, pollution and power, constraint and community : The paradoxes of religious women’s experiences of menstruation”, *Sex roles*, 68(1-2) : 121-131.
- Fernandez, M.(2010). *Breaking the silence :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n rural India*, World Water Week in Stockholm, September, 5-11.
- Fisher, J.(2006). “For her it’s the big issue : putting women at the centre of water supply, sanitation and hygiene.” WSSCC.
- George, R(2013). *Celebrating Womanhood—How better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s the path to better health. dignity and busine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
- Hirve, S., Lele. P., Sundaram, N., Chavan, U., Weiss, M., Steinmann, P. and Juvekar, S.(2015). “Psychosocial stress associated with sanitation practices : experiences of women in a rural community in India”, *Journal of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Development*, 5(1) : 115-126.
- Hoskins, J.(2002). “The menstrual hut and the witch’s lair in two eastern Indonesian societies”, *Ethnology*, 41 : 317-334.
- House, S., Mahon, T. and Cavill, S.(2012). *Menstrual Hygiene Matters*, WaterAid.
- Jansz, S. and Wilbur, J.(2013). *Women and Wash :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for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WaterAid.
- Kabir, B., Barua, M. K., and Ahmed, M.(2012). *Asia Regional Sanitation and Hygiene Practitioners Workshop*, Dhaka, Bangladesh.
- Kirk, J. and Sommer, M.(2006). “Menstruation and body awareness : linking girls’ health with girls’ education”, *Special on Gender and Health*, 1-22.
- Lahiri-Dutt, Kuntala(2015). “Medicalising menstruation : a feminist critique of the political economy of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n South Asia”, *Gender, Place & Culture*, 22(8) : 1158-1176.
- Lennox, B.(2013). “Becoming Clean : First Menstruation Rituals in Southeast Asia”, *New Views on Gender*, 14 : 89-98.
- Mahon, T. and Cavill, S.(2015). *Menstrual Hygiene Matters : Training guide for practitioners*, WaterAid.

- Mahon, T. and Fernandes, M.(2010). Menstrual hygiene in South Asia : A neglected issue for WASH programmes, WaterAid.
- Muthengi, Maurine, M.(2015). “Introducing Bio-Degradable Sanitary Towels in School in Kitui”, Proceedings of The 8th EGEP Open Forum, 16-17 July, Ewha Womans University.
- Nagarajan, V.(2007). “Threshold designs, forehead dots, and menstruation rituals : Exploring time and space in Tamil Kolams”, T. Pintchman ed., Women’s lives. women’s rituals in the Hindu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Narayan, K. A., Srinivasa D. K. Pelto, P. J. and Veeramal S.(2001). “Puberty rituals, reproductive knowledge and health of adolescent schoolgirls in South Asia”, Pacific Population Journal, 16(2) : 225-238.
- Narayanan, R., Van Norden. H., Gosling. L. and Patkar. A.(2012). “Equity and inclusion in sanitation and hygiene in South Asia : a regional synthesis”, IDS Bull, 43 : 101-111.
- Nielsen, A. C.(2010). Sanitary Protection : Every Woman’s Health Right, Plan India.
- Patil, R. Agarwal L. Khan MI, Gupta SK, Vedapriya DR, Raghavia M.(2011). “Beliefs about menstruation :A study from rural Pondicherry”, Indian J Med Specialities, 2 : 23-6.
- Puri, S. and Kapoor, S.(2006). “Taboos and Myths associated with women health among rural and urban adolescent girls in Punjab”, Indian Journal of Community Medicine. 31 : 168-70.
- Ranabhat, C., Kim, C. B., Choi, E. H., Aryal, A., Park, M. B., and Doh, Y. A.(2015). “Chhaupadi Culture and Reproductive Health of Women in Nepal”,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 27(7) : 785-795.
- Reddy, B. S. and Snehalatha. M.(2011). “Sanitation and personal hygiene, What does it mean to poor and vulnerable women?”, Indian J. Gender Studies, 18 : 381-404.
- Selvi, K. Tamil and S. Ramachandran(2012). “Socio-cultural Taboos concerning Menstruation : A Micro Level Study in the Cuddalore District of Tamil Nadu.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 and Research Publication, 2(8) : 1-7.
- Sommer, M., Ackatia-Armah, N., Connolly, S. and Smiles, D.(2014). “A comparison of the menstruation and education experiences of girls in Tanzania. Ghana. Cambodia and Ethiopia”, Compare :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5(4) : 589-609.
- Sumpter, C. and Torondel. B.(2013). “A systematic review of the health and social effects of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PloS one, 8(4), e62004.
- Tearfund(2009). Gender and sanitation : breaking taboos, improving lives, Teddington : Tearfund.
- Ten, V. T. A.(2007). Menstrual hygiene : a neglected con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severa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WSSCC.
- UNICEF(2008). “Bangladesh : Tackling menstrual hygiene taboos”, Sanitation and Hygiene Case Study, No.10.
- UNICEF(2012). Wash in Schools Empowers Girls’ Education : Proceedings of the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in Schools Virtual Conference 2012.
- WaterAid and IRC International Water and Sanitation Centre(2008). Beyond construction : Use by all A collection of case studies from sanitation and hygiene promotion practitioners in South Asia.
- WaterAid in Nepal(2009). Is menstrual hygiene and management an issue for adolescent school girls? A comparative study of four schools in different settings of Nepal, WaterAid.
- Weideger, Paula(1976). Menstruation and Menopause, New York : Alfred A.
- WHO and UNICEF(2014). Progress on Drinking Water and Sanitation. Joint Monitoring Programme update 2014, Geneva & New York.
- Wilson-Smith, E., Ramsden. V., Dickinson, S., Smith, C., and Pettit, K(2013). Menstrual Health Education Resource, Irise International.
- Winkler, I. T. and Roaf, V.(2014). “Taking the bloody linen out of the closet : menstrual hygiene as a priority for achieving gender equality”, Cardozo Journal of Law & Gender, 21 : 1-21.
- WSSCC(2013). Celebrating Womanhood :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 Geneva.

- _____(2012). Global Forum on Sanitation and Hygiene : insights on leadership. action and change,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 Geneva.
- _____(2000). Vision 21 : A Shared Vision for Hygiene, Sanitation and Water Supply and a Framework Fro Action, Water Supply and Sanitation Collaborative Council, Geneva.
- Yagnik, A. S.(2013). “Reframing Menstruation in India : Metamorphosis of the menstrual taboo with the changing media coverag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5 : 617-633.
- Zaidi, S. H. N., Sivakami, A. and Ramasamy, D. J.(2015). “Menstrual hygiene and sanitation practices among adolescent school going girls : a study from a South Indian tow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ty Medicine and Public Health, 2(2) : 189-194.

Abstract

Human Rights Discourse on Menstruation in Global Campaign of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Jieun Roh*

In the globalization era, menstruation is now at the point of discussing ‘menstruation as human rights’ as a global human rights norm and development agenda. In the global society in the mid-2000s, the menstruation problem was not addressed in the debate on feminism and reproduction rights movement, nor in the goal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global development, but in the irony of sustainable environmental goals in the issue of water, hygiene and san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menstrual discourse produced by the subjects of menstrual hygiene management through the menstrual hygiene day campaign and research report. It examines how menstrual reality, including the global menstrual taboo and menstruation statistics, in the underdeveloped regions of Asia is represented and how global human rights norms support the menstrual hygiene discourse. This suggests that women’s menstrual experience is extended to the feminist agenda of gender and reproductive rights in order to become a menstrual human right, beyond limiting menstrual problems to hygiene sanitation and health development agendas.

Keywords : Menstrual Rights, Menstrual Hygiene, Menstrual Taboo, WASH, MHM, SDGs, Asia

* Senior Researcher,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